

‘표특별법’ 오늘 교문위 전체회의 통과 여부 촉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정부·새누리 “전문성 강화하려면 법인 위탁해야”

박해자 법안 “안정적 재정운영 위해 국가기관으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문화전당)의 운영주체를 정하는 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문화전당 개관(9월4일)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법안통과를 전제로 마련된 문화전당 인력채용 계획이 연기되는 등 개관 준비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지역민들은 개관을 7개월 앞두고 더 이상 문화전당 개관차질을 막기 위해 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국회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9일 교문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상정 등 일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문화전당을 ‘법인’이 운영해야 한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과 “정부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박해자 의원(새정치연합)안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법안 통과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 “문화전당을 법인, 기타 기관에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화전당의 운영예산과 관련, “또 아시아문화원, 관련 전문단체,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문화전당을 법인이 운영하게 되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민간 수익 사업 등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문

■ 문화전당 운영주체에 따른 장단점 비교

구분	국가기관(문화부)	법인위탁(특수법인)
장점	· 안정적 재원확보 · 공공성 확보 · 조직원 신분안정	· 인력·조직 운영의 탄력성 · 전문성 강화 · 수익성 유리
단점	· 관료적 의사결정체계 · 전문성 부족 · 방만한 조직 운영 가능성	· 불안정한 재원확보 · 공공성 저하 · 직원의 신분 불안정
사례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현대미술관	· 예술의 전당 · 독립기념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회입법조사관실〉

화전당의 법인위탁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무원 조직으로 문화전당을 운영할 경우 창의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또 공공부문이 민간으로 이양되는 추세에서 예술기관의 법인화가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에 작용하고 있다.

박해자 의원은 광주시, 의회, 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문화전당을 정부 소속으로 운영하되, 일부 업무를 제한적으로 문화원에 위탁한다. 문화전당과 관련해 정부가 필요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체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광주시, 의회, 지역시민단체 등은 “문화전당 개관 초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필요 충분조건”이라며 정부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문화전당이 정부 소속으로 남을 경우 운영예산을 정부예산에 직접 편성해 확보할 수 있지만, 법인에 위탁하면 보조금 또는 위탁금으로 확보해야 하는 등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문화전당을 법인에 위탁할 경우 경영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게 돼 문화전당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연구, 창조, 교육 등 사업이 위축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문화전당이 수익을 추구하는 시설이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문화시설이기 때문이다.

한편 윤장현 광주시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문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특별법이 그렇게 오래 계류된 줄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영철 예술감독 해임 적절”

광주 문화·시민단체 논평

광주지역 문화·시민단체는 “이영철 예술감독 해촉”〈광주일보 1월12일자〉과 관련 논평을 내고 “이영철 문화창조원 예술감독 해임은 적절한 조치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민족단체연합, 지역문화호남교류재단, 광주전남문화연대는 8일 논평에서 “아시아문화개발원이 밝힌 이 감독의 해임사유는 세 단체가 지난 2013년 6월 전시예술감독 위촉철회를 요구했던 당시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최근 이 감독이 계약내용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계약을 해지했다. 이 감독은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종덕 문화부 장관이 자신의 홍익대 인맥을 요직에 기용하고, 그동안 기획해온 전시내용을 모두 뒤엎는 문화적 테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태권도 배우는 청소년들

광주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와 UN OSDP가 공동 주관한 2015 유스리더십프로그램(YLP)의 5차 일정 ‘태권도 프로그램’이 8일 호남대 광산캠퍼스 문화체육관에서 실시됐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15개국 32명의 청소년들이 태권도 기본 동작을 배우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골프장·산단조성 등 총체적 부실

5년간 당기순이익률 1.3% 불과

경영진단 용역 결과도 알맹이 없어

전남개발공사 경영진단 결과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률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등 특정개발사업의 분양수익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 창출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 경영진단 용역을 맡은 업체가 내놓은 대책과 미래전략사업이 상당부분 과거에도 거론된 것으로, 지역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것은

물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8일 지난해 발주한 전남개발공사 경영진단 용역과 관련 “전남개발공사의 경영진단 연구용역 결과 평균 부채비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차입금 의존도가 48%로 높고 수익성 부족으로 이자 상환능력이 저하된 재무구조를 보여 경영상 주의가 필요한 단계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1억1200만원을 받고 이번 용역을 맡은 (주)네모파트너스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의 금융부채는 5738억원으로, 여수경도(1985억원), 빛가람혁신도시(1600억원), 장흥바이오산단

(1000억원) 등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요사업별 당기순이익(2009~2013)을 살펴보면 남약지구 193억원을 시작으로 여수경도(99억원), 장흥바이오산단(58억원), F1(108억원), 기타(110억원) 등 빛가람혁신도시(663억원 이익)를 제외하고 모두 손실을 기록했다.

(주)네모파트너스 측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정주여건·인력공급 개선, 기업유치 지원정책 강화, 장기임대(시설 조성 후 임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필지분할, 가격 및 조건 완화, 조건부 사업시기 조정 등을 대책으로 내놓

았다. 또 호텔운영사업은 체류형 의료복합·재활치료시설 등으로의 업태 변경, 매각 등을, 여수경도사업의 경우 매각, 민간자본유치(공동투자) 등을 제시했다. 또 전남개발공사의 미래주력사업으로, 중소규모 택지·주택개발사업, 임대주택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들 대책의 경우 참신성이나 전문성, 현실성, 구체성 등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교수는 “경영진단의 핵심은 구조조정 대상 사업을 골라내고, 앞으로 어떤 분야의 사업을 해야 경영이 나아질 것인지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의 경영진단 결과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으나 전남도가 주말 보도자료와 용역보고서 요약본을 배포하는 선에서 마무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전남도 을 소방공무원 220명 증원

지자체보다 5배 늘어... 청원경찰도 4명 채용

전남도가 올해 소방공무원 220명을 증원하고, 청원경찰 4명을 채용한다.

전남도는 8일 “지자체 선발인원(46명)의 5배에 달하는 채용계획을 수립했으며 최근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채용분야는 소방분야 138명, 구조분야 36명, 구급분야 39명, 항공구조사 2명, 화재사 2명, 전산분야 3명 등이다.

소방분야는 공개경쟁으로 선발하고, 구조, 구급 등 나머지 분야는 관련 자격 또는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경력경쟁으로 선발한다. 응시 자격은 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주소지가 전남으로 돼 있거나,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과거 3년 이상 전남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공개경쟁으로 선발하는 소방분야는 21세 이상 40세 이하, 경력경쟁 분야는 20세 이상 40세 이하고, 소방조종사 분야는 23세 이상 45세 이하만 응시할 수 있다.

원서 접수는 오는 3월2일부터 6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필기시험은 오는 4월18일에 실시한다.

전남도는 또 청원경찰 4명을 공개 채용한다. 필기시험은 4월25일 실시하고, 5월 8일 체력시험과 5월 27일 면접시험이 시행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윤현석기자 chadol@

‘전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 조례안’ 의결

전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배종범 의원(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전남도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5·18기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심의·자문을 위한 5·18기념사업위원회 설치, 5·18기념 및 정신계승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5·18기념사업 추진 기관 및 법인·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5·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일부를 5·18단체에 위탁하거나 광주시와 공동사업 추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도 담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모집 인원	▶ 30명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중국 전문 인력양성

www.gochina.co.kr

저렴한학주세요!!
사학적인 만드신 생장합니다.

☎ 233-9582 (중)구오팔리

1636 결코 **믿음소망** 말하세요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국가통신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 평생 연금처럼 보장받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디스커리 '眞, 김사연' 영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주)올피아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